

특 집 : 한국보건정책의 현재와 미래

청소년의 술, 담배, 약물 등 남용현황 및 대책

김 경 빈

김경빈신경정신과의원, 경희의과대학 외래교수, 한국중독정신의학회 회장

1989년 이전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사나 신경정신과 교실 단위의 청소년 약물남용에 대한 역학 연구가 있었고, 1989년(김성이 등)에는 대한적십자사의 지원으로 전국 규모의 청소년 약물사용실태조사를 시행한 적이 있다.

1992년부터 1997년까지는 정부(체육청소년부, 문화체육부, 청소년보호위원회) 지원으로 한국청소년학회에서 주관하여 전국규모의 청소년약물사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한국청소년학회의 첫 연구사업이었던 1992년(권이종 등)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유해시설, 유해물품(본드와 부탄 가스), 유해매체(영상 및 인쇄매체), 결손가정 등의 유해환경에 대한 종합적 연구조사를 실시하였다.

1993년(차경수 등)에는 전국 규모의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와 대책연구가 실시되었고, 1994년(최경구 등)에는 청소년약물남용의 사회·경제적 영향 연구가 실시되었으며, 1995년(김성이 등)에는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 재활 프로그램 연구가 실시되었다.

1996년(김성이 등)에는 1993년에 이어 다시 한번 전국 규모의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와 예방대책 연구가 실시되었다. 1997년(김성이 등)에는 약물남용 청소년 예방활동이란 연구를 통해 학교 현장 및 보호관찰소를 직접 찾아가 예방교육을 직접 실시해 보는 실험적 성격의 연구가 있었으며 이 때 당시의 연구들이 오늘의 "건강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비슷한 성격의 연구로 보여진다.

1999년(윤형석 등)은 1996년에 이은 3년만의 전국 규모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를 조사하는 해였다. 마침 동연구가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주관하게 되었고, 당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주요 업무가 청소년의 유해환경, 유해매체, 유해약물 등 3개 부분이었고, 유해환경 및 유해매체 부분에서도 실태에 대한 연구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유해약물의 조사시 유해환경과 유해매체에 대한 실태도 함께 조사하기에 이르러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매체물, 약물, 업소부문)"이 나오게 되었다. 청소년 약물사용 실태에 관한 1999년의 연구조사가 최신택견이다.

1999년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조사한 청소년 약물사용 실태조사에 의하면 초등학교 < 인문계 고교생 < 중학생 < 실업계 고교생 < 가출 청소년 < 비행 청소년 등의 순서로 약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근로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인문계 고교생과 유사한 정도로 청소년으로서의 순수성들을 잘 지니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이 인문계 고등학교에 들어가거나 제도권의 학교에 머물고 있는 한 약물사용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에, 학교를 이탈하여 가출을 하고 비행을 저지르는 한 약물사용 위험도 함께 늘어난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다.

1. 약물 및 물질 사용에 대한 태도 및 인식, 위험 요소에 관한 사항

1. 술, 담배에 대해 해롭다고 생각하는 인식 정도
술을 매일 마시거나, 담배를 1갑 이상 피우거나, 본드나 대마초 등 위험한 약물을 사용하는 청소년일수록 술/담배가 해롭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더 높았다. 이러한 인식 비율은 학생층이 특수집단에 비해 술/담배가 더 해롭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술 담배의 해악성에 대한 예방교육 현장에 도입시켜 보면, 술/담배/약물 등을 심하게 사용하지 않는 청소년들에게는 단순한 건강교육만으로도 술/담배가 해롭다고 하는 인식을 줄 수 있지만, 술/담배/약물 등을 심하게 사용하는 청소년들에게는 단순 건강교육만으로는 청소년들의 마음에 전혀 어필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2. 금주, 금연, 단약 등의 수월성에 대한 태도

술, 담배, 본드/가스 등은 일단 사용하기 시작하면 끊기가 힘든 습관중독성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약물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특수집단의 청소년들은 마음만 먹으면 쉽게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알코올 중독자나 약물중독자들도 바로 이러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중독의 깊은 늪으로 쉽게 빠져들고, 빠지고 나면 쉽게 헤어 나오지 못한다.

알코올을 중독이나 약물중독으로 입원하는 중증 환자들에게 중요하게 알려주는 정보중의 하나가 바로 이부분이다. 쉽게 빠져 나올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너무 단순한 생각이다. 그렇게 쉽게 빠져 나올 수 있는 약물이라면 전세계가 그리 떠들썩해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중에는 중독성 물질에 쉽게 중독이 되는 중독체질의 사람들이 있다. 중독체질의 사람이 술이나 약물을 사용하게 되면 중독이 될 확률이 무척 높다. 중독이 되면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게 된다. 중독치료센터에서는 바로 이러한 중독체질 및 유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한다.

청소년의 부모님들 중에는 중독체질을 가진 분이 계실 것이고, 그러한 집안 출신일수록 중독성 물질에 손을 댈수록 중독으로 들어갈 확률이 무척 높다. 중독체질이 아니라하더라도 중독성 물질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후천적으로도 중독이 가능하기는 하다.

위와 같이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술, 담배, 약물 등을 접하기 이전에 가르쳐 주어야 한다. 일단 술/담배/약물을 경험하고 나면 그 즐거움 및 습관성으로 인해 술/담배/약물에 대해 나쁜 이미지를 가지기가 쉽지 않다. 사용을 시작하기 훨씬 이전부터 교육이 시작되어야 한다.

3. 친한 주위 사람이 술, 담배 등을 사용하는 정도

주변 친한 사람이 술/담배/약물을 사용할 때 당사자도 사용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는 또래관계에서도 그렇고, 부모자식 관계에서도 그렇다.

임상에서 보면 약물중독청소년 아버지의 50% 이상이 알코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소년에게서 술/담배/약물 사용비율이 줄어들기 원한다면 집에서부터 술/담배/약물 등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학교에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청소년층에서의 사용자 수도

적극적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

학교에서는 사용자가 발견되었을 때 단순 처벌로 문제의 해결기회를 놓치기보다는 지역사회(보건소 포함)내에 존재하고 있는 술/담배/약물 치료재활센터 등에 충분한 기간 동안 보내어서 술/담배/약물 등의 사용습관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II. 담배의 흡연 빈도 및 흡연 형태

1. 담배 흡연에 관한 사항

① 담배를 처음 피워본 시기

청소년에게 있어,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있어 흡연을 언제부터 시작했는가는 청소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주요 지표이기도 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대마초의 시작이 향후 일련의 약물사용의 gateway로서 작용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흡연이나 음주의 시작이 청소년 탈선의 gateway로 작용되는 것 같다.

표 1에서 보아도 실업고를 진학하는 학생일수록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 1학년 때 흡연을 시작하는 비율이 인문고교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비율이 더 높았다. 교칙위반이나 가출 및 비행청소년일수록 초등 6학년 때부터 현격하게 흡연을 시작하고 있었다. 비행청소년일수록 중 1-2학년때 흡연을 시작하는 경우가 27.2% 였다(표 1).

고등학생의 경우 흡연예방교육은 의미가 별로 없다고 보아야 한다. 흡연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단연교육이 필요하지 통상적인 흡연예방 교육은 거의 의미가 없다. 인문계 학생이 흡연을 시작하는 비율이 19.1% 이니까 인문고교생 1학년 신학기 초의 흡연예방교육은 모범생 집단인, 전체 학생의 1/5에서만 의미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실업계 고교생의 경우에는 고교 입학후 담배를 새로 시작하는 경우가 11.7%로서 1학년 1학기 초의 흡연예방교육이 1/10의 모범학생들에게 의미가 있을 뿐이다.

흡연예방교육으로 효과를 얻으려면 적어도 초등 5학년 때부터 강력한 흡연예방교육이 집행되어야 하며, 초등학교 졸업직전과 중학 1학년 1학기 초에 집중적인 흡연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흡연을 뒤로 지연시킬수록 청소년들이 학교를 이탈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표 1.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흡연을 처음 시작하는 시기

문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칙위반 청소년	가출 청소년	비행 청소년
		1	2	3	인문계			실업계				
					1	2	3	1	2			
총사례수(명)	860	860	860	860	560	560	560	300	600	100	100	100
해본적 없음	99.8	84.4	75.5	72.2	67.7	60.8	63.3	42.1	42.7	26.3	46.5	42.4
초등 1		1.9	1.5	1.1	1.5	1.8	0.4	1.3	0.7	1.0		3.0
초등 2		1.3	1.2	2.0	1.5	1.4	0.7	0.3	0.2		1.0	2.0
초등 3	0.1	2.5	1.3	0.9	1.1	0.9	0.9	1.0	2.0	3.0	2.0	
초등 4		2.4	2.6	2.0	0.9	2.0	0.7	3.0	2.0	2.0	2.0	2.0
초등 5		3.7	2.6	1.3	0.9	1.6	1.6	2.4	2.5	1.0	2.0	5.1
초등 6	0.1	3.2	4.8	3.9	1.6	2.2	1.6	4.7	4.4	11.1	10.1	6.1
중 1			6.2	7.6	4.4	4.1	4.7	14.8	9.1	17.2	11.1	13.1
중 2			4.2	5.9	7.3	9.0	8.7	15.2	15.0	16.2	14.1	6.1
중 3				3.1	10.3	8.3	9.1	8.8	13.0	15.2	8.1	5.1
고등 1					2.9	5.8	4.5	6.4	3.6	6.1	1.0	
고등 2						2.2	2.4		1.7		2.0	
고등 3							1.3			1.0		1.0

② 담배를 습관적으로 피우기 시작하는 시기

대체적으로 중학생들은 중2에 담배를 습관적으로 피우기 시작하며, 인문계 고교생들은 중3에서 습관적으로 피우기 시작하고, 실업계 고교생들은 중2에서 습관적으로 피우기 시작하고, 교칙위반/가출/비행 청소년들은 중1에 습관적으로 피우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를 역으로 분석해 보면 중1 시기부터 담배를

습관적으로 피울수록 교칙위반/가출/비행 등을 저지를 비율이 높아지고, 중2부터 습관적으로 피울수록 실업계 고교로 진학할 비율이 더 높았으며, 중3 이후에 습관적으로 피울수록 인문계 고교로 진학할 비율이 더 높았다(표 2).

위의 결과는 흡연 시작을 늦출수록 청소년들의 일탈행위 빈도도 줄어든다는 기존 이론들과 부합되는 결과들이다(표 2).

표 2. 담배를 습관적으로 피우기 시작하는 시기

문항	중학교			고등학교					교칙위반 청소년	가출 청소년	비행 청소년
	1	2	3	인문계			실업계				
				1	2	3	1	2			
총사례수(명)	860	860	860	560	560	560	300	600	100	100	100
해본적 없음	97.1	90.7	87.7	85.5	81.1	75.9	65.2	58.4	35.0	1.0	43.3
초등 5		0.5	0.1				0.7	0.2			2.1
초등 6	0.8	1.0	0.4		0.4	0.2	0.7	0.7	2.0		3.1
중 1	1.7	2.0	1.8	0.7	0.9	2.0	3.4	1.7	13.0	13.3	8.2
중 2		5.5	5.4	2.9	3.1	2.4	7.8	7.3	13.0	8.2	16.5
중 3			4.3	5.0	5.3	4.9	10.6	11.8	22.0	15.3	14.4
고등 1				5.0	5.1	7.7	11.3	12.3	13.0	7.1	4.1
고등 2					4.0	4.2		7.5	1.0		5.2
고등 3						2.6			1.0		1.0

③ 흡연 경험을

담배를 습관적으로 피울 확률은 학년이 올라가고, 학교에서 일탈할수록 더 높아졌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습관적 흡연이 없었고, 중학생(중 1/2/3)의 경우에는 1.1%/4.4%/6.6%의 비율이었고, 인문계 고교생(고 1/2/3)의 경우 5.1%/9.9%/15.5%의 비율이었고, 실업계 고교생(1학년/2학년)의 경우 20.9%/24.3%의 비율이었다. 학교를 일탈할수록 습관성 흡연 비율이 급상승하였는데 교칙위반/가출/비행 청소년의 경우 습관성 비율이 45.0%/40.4%/44.0%였다(표 3).

① 현재의 음주비율

학생지도가 엄격하여야 하고, 지금 현재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할 학생층에서도 실제 술을 마시고 있다. 지금 현재 술을 마시는 것으로 판단하는 지표인 최근 1개월 이내의 음주경험이 중학교 1학년 7.7% > 중학교 2학년 17.1% > 중학교 3학년 23% > 인문고 1학년 34.4% > 인문고 2학년 40.1% > 실업고 1학년 43.9% > 인문고 3학년 50.5% > 실업고 2학년 64.8% 등의 순서였다.

표 3. 흡연 경험을 비교

문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칙위반 청소년	가출 청소년	비행 청소년
		1	2	3	인문계			실업계				
					1	2	3	1	2			
총사례수(명)	860	860	860	860	560	560	560	300	600	100	100	100
한번도 없다	90.5	79.7	67.9	67.8	59.1	52.3	53.1	39.4	37.3	12.0	15.2	7.0
1-2번 피워바	8.1	15.7	18.2	16.9	23.2	24.0	16.2	20.5	17.7	10.0	10.1	3.0
가끔, 비습관성	1.1	2.4	6.9	6.6	8.0	9.4	10.8	13.1	12.3	21.0	17.2	16.0
가끔, 예전 습관성	0.4	1.1	2.6	2.0	4.6	4.3	4.3	6.1	8.3	12.0	17.2	30.0
지금도 습관성		1.1	4.4	6.6	5.1	9.9	15.5	20.9	24.3	45.0	40.4	44.0

④ 담배 구하는 장소 및 흡연 장소

담배 구하는 경로는 학생들의 경우 동네슈퍼가 57.4%, 얻어피우기가 16.0%, 기타가 18.8%였다. 학생이 아닌 일탈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동네슈퍼가 65.7%, 담배자판기가 10.4%, 24시간 편의점이 9.6%였다.

학생/일탈 청소년들은 공원이나 야산(21.4/23.3%), 자신의 집(16.1/17.6%), 친구집(13.7/14.1%), 노래방(8.2/12.8%), 호프집이나 소주방(5.0/10.6%)에서 주로 담배를 피웠다.

⑤ 담배 끊기를 희망하는지, 시도는 해보았는지에 대한 사항

학생/일탈 청소년들이 담배 끊기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30.4%/44.6%였다. 지금 현재 담배를 끊고 싶어하는지에서는 59.8%/47.8%가 그렇다라고 대답하였다.

III. 알코올 사용 빈도 및 형태

1. 음주 경험 및 알코올 남용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학생층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음주율이 증가하고 있었는데, 중학교 1학년때 7.7%이던 음주율이 실업고 2학년이 되면 64.8%로 급상승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교 1학년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지속적인 음주관련 교육이 필요함을 상징하고 있다. 청소년의 음주는 법이나 학칙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마시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술은 많은 경우에 인간의 삶에 근본적인 재앙을 가져다 주는 마약과 유사한 약물이다. 학생들에게는 재앙을 예방해주는 실제적인 음주예방교육이 필요하다. 형식적 교육이 아닌 실제적 교육이 필요하다.

② 치료재활이 필요한 수준의 알코올 중독 비율

정신의학적 치료재활이 필요한 수준의 알코올 중독에는 남용과 의존이 있다. 현재의 조사자료만으로는 의존에 대한 부분을 추정해볼 근거가 없지만 남용 부분은 추론이 가능할 수도 있다. 남용이란 과음으로 인해 본인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수

준을 의미하는데 술에 취해보았다고 하는 질문은 남용을 의심해볼 수 있는 문항이다. 한달에 3-4번 이상 술에 취해보았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수준으로 보아야 하는데 중학교 1학년 1.1% > 중학교 2학년 1.9% > 중학교 3학년 2.1% > 인문고 1학년 2.4% > 인문고 2학년 4.6% > 실업고 1학년 5.2% > 인문고 3학년 5.3% > 실업고 2학년 8.8% 등의 순서였다.

특수청소년중 교칙위반자의 12.4% > 비행청소년의 27.4% > 가출청소년의 38.8% 등이 한달에 3-4번 이상 술에 취해 지냈다고 한다.

정신과의사를 만나 알코올 중독 수준인지 아닌지를 감정 받아보아야 할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에서는 1.1%이지만 실업고 2학년이 되면 8.8%로 급증하고 있다. 교칙위반 학생의 12.4%와 가출청소년의 38.8%도 알코올 중독 가능성에 대한 감정이 필요한 수준이었다.

우리나라의 학생층에서 알코올 예방교육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라고 할만한 수준임에 반해 실제적 교육은 전무하다고 보아야 한다. 비행이나 가출청소년의 상담에서 알코올 상담이 차지하는 비중도 더욱 높혀야 한다. 담배와 달리 술은 청소년 자신은 물론 주변 모두에게까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약물이다.

2. 청소년들은 술을 어디에서 구해서 어디에서 마실까?

① 술 구입처 : 학생들의 술 구입 장소로 동네슈퍼 66.7% > 호프집 소주방 11.0% > 24시간 편의점 4.8%로 나타났으며 기타가 17.4%였다.

② 술을 마시는 장소 : 주로 마시는 장소로는 친구집 24.3% > 호프집 소주방 21.5% > 자신의 집 20.7% > 공원이나 야산 9.6% > 포장마차 1.6%의 순서였다.

3. 술과 관련된 정책 방향 :

① 주류판매허가제의 필요성 : 위의 결과를 놓고 본다면 청소년들이 너무 쉽게 술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보위에서는 주류판매허가제라도 실시하여 청소년들에게 술이 너무 쉽게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② 술 마시는 장소에 대한 근본적 검토 : 호프집과 소주방이 서민을 위한 술집이어야 하는데 학생들

에게 너무나 쉬운 술집 역할도 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함을 알 수 있겠다. 청보위나 경찰에서는 호프집과 소주방을 집중 단속하여야 한다.

③ 가정교육의 강화 :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집안에 비치하고 있는 술을 부모 몰래 마시고 있음을 알아야 하고, 부모님이 집을 비우는 사이나 방심하는 사이에 자녀들이 술을 마시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IV. 약물 사용 빈도 및 형태

1. 본드 및 가스의 평생 사용 경험을

청소년에서의 본드와 부탄가스 사용율은 비슷하였다.

청소년에서의 본드 사용 평생 경험율은 인문고 2학년 0.5% > 초등학교 5-6학년 0.7% > 중학교 1학년 1.0% > 중학교 3학년 1.3% > 인문고 3학년 1.3% > 중학교 2학년 1.9% > 인문고 1학년 2.2% > 실업고 2학년 2.2% > 교칙위반자 3.1% > 실업고 1학년 3.4% > 가출청소년 51.6% > 비행청소년 52.1%의 순서였다.

2. 본드 및 가스의 지금 현재 사용 경험을

인문계 및 실업고 2학년이 각 0.4% > 실업고 2학년 0.5% > 중학교 3학년 0.6% > 인문고 3학년 0.7% > 중학교 1학년 0.9% > 중학교 2학년 1.4% > 인문고 1학년 1.5% > 비행청소년 31.9% > 가출청소년 34.0% 등의 순서로 본드를 지금 현재 사용하였다고 응답하였다(표 4).

본드와 가스의 사용 행태가 다소 차이를 보이는 데, 가출 청소년들은 본드에 비해 가스를 선호하였고, 비행 청소년들은 본드를 좀 더 중독적으로 사용하였다.

임상에서 보면 여자청소년 중독일수록 부탄가스를 선호하였고, 남자청소년 중독일수록 본드를 선호하였다.

3. 기타 약물(진통제, 잠안오는 약, 수면제 등)의 사용 경험을

중고교생들의 약물 사용 경험율은 진통제가 19.9%, 잠안오는 약이 7.6%, 수면제가 4.2%였다. 가출이나 비행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진통제가 27.9%, 잠안오는 약이 15.3%, 수면제가 15%였다.

표 4. 본드나 부탄 가스 사용 경험을

문항	초등학교	중 학교			고 등 학 교					교 칙 위 반 청소년	가 출 청소년	비 행 청소년
		1	2	3	인문계			실업계				
					1	2	3	1	2			
총사례수(명)	860	860	860	860	560	560	560	300	600	100	100	100
평생경험율												
본드	0.7	1.0	2.0	1.3	2.2	0.5	1.3	3.4	2.2	3.1	51.6	52.1
부탄가스	0.5	0.8	1.5	0.6	1.8	0.7	1.1	1.0	1.4	2.1	43.3	28.0
지난1개월 경험율												
본드	0.0	0.9	1.4	0.6	1.5	0.4	0.7	0.4	0.5	0.0	34.0	31.9
부탄가스	0.0	0.9	1.4	0.8	1.3	0.4	0.6	0.7	0.3	1.1	27.4	9.0

V. 기존에 실행된 학생 대상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 소개

1.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약물남용 예방 학교 프로그램(1997, 청소년학회)

① 프로그램 개요

사회복지사와 대학원생이 8차례의 준비모임을 가친후 1997년 9월 3일 강남의 개원중학교 1학년생 중 4개 학급 158명을 대상으로 일일 프로그램 시행 (08:20-10:00)

② 프로그램의 목적

약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심어주고 지식전달을 함으로서 약물남용을 사전에 방지한다. 더 나아가 학교청소년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예방교육의 진행방식을 개발한다.

③ 프로그램 내용

- ㉠ 고위험군선별검사를 통한 분반 실시
- ㉡ 비디오풀 이용한 예방교육
- ㉢ 유인물 초독회 및 차트 강의
- ㉣ 자유토론헌기
- ㉤ 전체 학급모임에서 분반장의 교육내용 및 토의되어진 내용을 소개하기

④ 프로그램 실시방법

- ㉠ 프로그램 팀의 사전 연습 : 복지관 이용 청소년 56명을 대상으로 1997/8/27-30 사이 리허설
- ㉡ 실시 1주일전 약물사용 고위험군 선별검사표를 이용 분반을 나누고
- ㉢ 분반 ; 점수 분포를 이용 알코올반, 약물반, 이성반, 흡연반 4개반으로 분반

④ 4개반에 맞게 준비된 교육을 시행, 교육 전후의 사전 및 사후 조사 실시

⑤ 프로그램 평가방법

프로그램 평가, 약물지식 및 태도 평가, 사전사후 설문 등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분석하고, 토론내용 중 긍정적 진술내용 정도로 평가

⑥ 기대효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효율적인 예방교육의 진행방식을 개발 보급하기

2.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약물남용 예방 학교 프로그램(1997, 청소년학회)

(1) 1997, 인문계 여고생을 위한 약물남용예방교육

① 프로그램 개요

- ㉠ 프로그램 진행자 : 해화여고 교사
- ㉡ 실시기간 : 1997년 7월 13일 - 10월 18일
- ㉢ 절차

- 7월 13-15일 ; 고위험군검사 실시 프로그램 적용 학급 선정
- 9월 18-20일 : 사전조사
- 9월 22일 - 10월 11일 ; 프로그램 진행
- 10월 14-18일 사후검사 및 주관적 평가 실시

② 이론적 배경

협동학습, 글쓰기, 역할극의 효과에 대한 이론에 기초하여 실시한 소집단활동

③ 프로그램 목적

약물청소년들의 약물남용을 감소시키고, 약물남용의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고자 함

㉠ 약물의 해악성을 알게 한다.

① 거절하기 기술을 습득하고 '아니오'라고 말하는 이유를 안다.

② 약물사용을 부추기는 근거없는 말들과 고정 관념들에 대해 알아본다.

③ 청소년의 약물사용이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를 알게 된다.

④ 프로그램 내용

① 고위험군선별검사에 의한 반 선정 : 위험도가 가장 높은 두 개 학급 선정

② 읽기 자료 제공 : 자료에 기반하여 대본을 작성해가도록 유도

③ 조편성 및 배역설정 ; 집단끼리 제목 줄거리 정하기, 배역정하기, 이때 배역은 집단원의 수와 동일하게 함

④ 대본작성 :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상세하게 대본을 작성해 감. 전체 성원의 토론에 의하여 대본내용결정

⑤ 대본 마무리 및 연습 : 대본의 내용에 대한 타당도 검토와 배역 연습

⑥ 실연 : 준비한 소도구를 이용, 사실감있게 역할극 발표, 역할극을 하면서 느낀 점등을 나눔

⑤ 프로그램 평가방법

① 약물에 대한 지식 습득 평가

② 자기보고식 설문지에 기초하여 약물에 관한 부정적 태도 평가

③ 주관적인 평가내용

④ 학생들이 작성한 시나리오 분석

⑤ 수업활동에 대한 주관적 평가

⑥ 기대효과

① 현장교사들의 참여 유도

② 약물남용예방교육과 교수방법과의 접목시도

③ 약물남용예방교육 기법의 개발, 적용, 효과검증을 통한 확산

(2) 1997, 실업계 여고생을 위한 약물남용예방교육

① 프로그램 개요

① 프로그램 진행자 : 사회복지사 2명, 학교심성 훈련 자원봉사자, 대학원생

② 실시기간 및 절차 : 1997년 9월 29일 10:45 - 18:30

③ 반편성 : 고위험군검사 실시 결과에 의하여 알코올, 약물, 이성, 금연집단 등 4개조로 편성 진행

④ 실시대상 : D 여상 2학년 8학급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구분함

② 프로그램 목적

약물사용 여부 및 정도에 따른 대상구분을 통하여 약물에 대한 이해, 약물에 대한 대처방안을 교육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① 결과목표 1 : 약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② 결과목표 2 : 약물에 대한 대처방안을 습득한다.

③ 결과목표 3 : 사회적응능력을 향상한다.

③ 프로그램 내용

① 청소년약물사용 고위험군 선별검사표 작성을 통한 분반

② 나무젓가락 게임 :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긍정적 사고를 키워줌

③ 장점나누기 :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고 장점을 발견할 동기를 부여함

④ 별칭맞추기 : 키가 비슷한 이들을 조별로 묶은 후에 특성에 맞게 별칭을 각자 지은후에 서로의 별칭을 맞추도록 함. 이를 잘 수행한 조는 보조 진행을 시킴

⑤ 연극 : 자원봉사 방송극작가의 참여에 의한 약물관련 시나리오 창작 → 연극반의 연습 → 분반구별 없이 모든 참여학생들 앞에서의 연극 공연

⑥ 토론 및 강의

⑦ 나와 사랑, 나와 이성교제, 이성교제의 장단점

④ 프로그램 평가방법

① 청소년약물사용고위험군 선별검사표는 측정도구로 분반에 사용

② 설문지를 이용 프로그램 만족도 측정, 효과평가, 약물지식과 태도 평가

⑤ 기대효과

실업계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진행방식 개발

6. 예방교육 및 치료 재향에 관련된 문제점들

1. 예방교육의 시작 시기에 대한 부분
술, 담배에 대한 예방 및 교육 지도는 초등학교 4, 5 학년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타당하다.
2. 예방교육 시간에 대한 부분
학생이나 문제청소년 상담에서 술/담배/약물 등에

대한 예방 및 재활교육은 내실이 있어야 하고, 충분한 기간이 주어져야 한다.

고위험 청소년에 대한 교육은 더욱 많은 시간과 노력이 주어져야 한다. 대체적으로 보아 알코올 중독이나 문제 음주 부모의 청소년 자녀들이 가장 위험성이 높은 교육대상이며, 가출 및 비행청소년은 위험성이 높은 교육대상이자 재활대상이 되기도 한다.

3. 금주/금연/단약의 치료재활 문제

금주나 금연을 시도하는 청소년들이 있기는 하지만 실패율이 높다.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의 금주/금연 의지를 키워주고 확실하게 술과 담배를 끊어주도록 하는 치료재활 기관이 전무한 상태이다.

아직까지는 비의료인에 의한 비전문적 교육이 대부분이다. 전문의료인에 의해 운영이 되는 질이 좋고 효과도 좋은 금주/금연 클리닉이 필요하다. 교육부와 청보위에서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양질의 금주/금연/단약 클리닉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의뢰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청보위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의뢰를 하여 양질의 금주/금연/단약 클리닉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개설되도록 하고, 교육부를 경유해서 학교장이나 교육장의 명령으로 음주/흡연/약물사용 등과 관련된 학생들이 금주/금연/단약 클리닉에 가서 확실한 치료재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민간기관에서는 수요가 있어야 공급체계를 만들어 낸다.

만약 민간기관에서의 금주/금연/단약 클리닉 개설 유도가 어렵다면 보건복지부, 교육부, 청보위 중 어느 한 부처에서라도 무료로 운영이 되는 금주/금연/단약 클리닉을 만들어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소와 국·공립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교육부에서는 학교건강관리소나 국립대학 병원을 중심으로, 청보위는 향후에 만들어질 수도 있는 청소년 보호 institute를 중심으로 금주/금연/단약 클리닉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7. 예방교육 및 치료 재활에 관련된 제언

A. 예방 관련

1. 예방교육의 정규 교과목화

학생 및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약물에 대한 예방교육이 내실화되어야 하고, 초등학교 4, 5학년 이전부터 교육이 시작되어야 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년 충분한 시간이 배정되어야 하고 내실있는 예방교육이 되어야 한다.

2. 학교에서의 음주 예방 교육이 좀 더 내실이 있어야 한다.

3. 고위험 청소년에 대한 예방교육을 철저히 한다. 주의사항으로 예방교육으로 인해 고위험 청소년이란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4. 청소년들에게 술/담배/약물 등을 판매하고 사용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손해나는 일인지를 알 수 있게끔 단속을 철저히 한다.

B. 치료재활 관련

5. 금주/금연/단약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처벌보다는 치료재활을 해주는 방향으로의 교육이 되도록 한다.

6. 음주문제로 적발되는 청소년들(사고, 싸움, 경범죄, 교칙위반 등)에게는 제도적으로 전문가에게 의뢰해 음주문제의 정도를 평가하게 해주고, 알코올 남용 수준인 경우 치료 재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C. 정책관련 부분

7. 민간부분의 금주/금연/단약 클리닉을 양성한다.

8. 민간부분 양성이 어려우면 보건복지부, 교육부, 청보위 등 정부부처에서 주관하는 양질의 의료전문 무료 클리닉을 개설한다.

9. 주류판매허가제를 실시하여 주류가 청소년에게 쉽게 접근될 수 없도록 한다.